

무·닭고기 값도 쑥↑...치킨값 또 오르나

지난 겨울 한파·병아리 공급 감소...무 43%·닭 14.8% 올라 정부, 비축물량 방출·가축입식 확대·할당관세 등 공급 늘려

하염없이 오르는 먹거리 물가에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와 닭고기 가격마저 동반 상승을 겪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의 경우 공급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식당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은 두 품목의 가격이 올라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 가격은 지난 겨울철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2% 감소

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NAFTA) 가격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4일 무 도매 가격은 20kg 기준 1만9200원으로 작년보다 5832(43%)원 비싸고 평년보다도 6581원(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무는 단무지, 찜무, 깍두기, 무생채 등의 원재료로 외식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치솟은 무 가격이 봄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6월 이후에야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 비축 물량 5800t을 도매시장에 하루 100~200t씩 방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비축 물량 일부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또 단무지, 찜무 등을 가공하는 업체의 원물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수입무 전량에 할당관세(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양이 16kg이나 달하는 대표 먹거리 닭고기도 가격 상승도 심상치 않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달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14.8% 상승한 1kg 당 4079원을 기록하고 있다. 닭고기는 병아리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무와 닭고기 이외에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높은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봄철 생산물 출하와 기온 상승,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싼 가격대가 형성된 양파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51.7% 올랐으나, 최근 조생양파가 출하되면서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NAFTA)를 통해 양파 대량 소비처에 수입 양파를 공급한다.

시설재배의 경우 지난 달 중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배추는 겨울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1년 전보다 도매가격이 10.3% 하락했으나, 저장 배추 품질 저하와 기상악화 등의 요인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비축 물량 8200t을 방출할 예정이다.

소고기는 공급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돼지고기는 생산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10% 낮다.

계란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3%, 2.3%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 무, 감자 등 일부 품목은 저장량 감소, 기상악화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어 품목별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불안 시 비축물량 방출, 가축 입식 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재만(왼쪽 다섯번째) 임곡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범시의 전염병과 병해충을 예방하는 '범시 종자소독'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곡농협은 오는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상 소독을 실시한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전남본부 '사랑의 정 나눔' 행사 진행

어르신들에 축산물 전달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와 영암축협(조합장 이맹중)은 지난 3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농협은 군서면 노인복지회관과 신북면 주암마을, 도포면 성산마을

에 약 400만 원 상당의 축산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등)과 물품을 나눴다.

박종탁 본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게 돼 보람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농협은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와 후원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축산운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선진축산 도약을 위해 2012년부터 범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가주부모임, 함평나비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박민숙)은 지난 3일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장을 찾아 '신바람 농촌! 건강한 도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슬로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제11대 임원과 농협 함평군지부, 함평군청 직원이 함께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문구를 부착한 500g 검정보리쌀 500개를 나눠주며 홍보했다.

함평나비대축제 현장에서 (사)농가주부모임전

국연합회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박민숙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야말로 소멸 위기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우리 땅에서 난 안전한 먹거리를 담례품으로 받은 도시민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며, 우리 농업인들 또한 신바람 나서 농업에 매진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메일로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발송 서비스 운영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메일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송한다.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함께 운영해 신청이 많은 품목 10개를 매주 검사하고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권순욱 해수부 여충양식정책관은 "방사능 검사 메일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병충해 막고 영농비 절감 돕는다 임곡농협, 범시 종자소독 무상 실시

임곡농협은 영농철을 맞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범시 종자소독'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임곡농협은 60도 물에 10분동안 침지시킨 후 찬물에 15분 담그는 '범시 온탕 소독'을 활용해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등 종자전염성 병해충을 예방하고, 병해충약제 저항성 문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기재만 조합장은 "이번 범시 종자소독 무상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농비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